부모교육연구 제4권 1호
The Korea Parents Education Association
2007. 6. Vol.4 No.1, 39~60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

A Study on the University Students' Sense of Duty to Support the Elderly and Attitude toward Dementia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학과
박사과정 김 애 희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박 인 전*
Dept. of Art Therapy,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Complete the doctoral course of study Kim, Ae-h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Park, In-Jeon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sense of duty to support the elderly and attitude toward dementia of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were total 371(male 117; female 254)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located in G city.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and collected during the period of October-5 through October-27.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and Scheffé-test, Pearson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sense of duty to support the elderly correlated positively with their attitude toward dementia. Especially, the university students' emotional attitude toward dementia was the best predictor of their sense of duty to support the elderly.

주요어(Key Words) : 대학생(University Students), 노부모부양의무감(Sense of duty to support the Elderly), 치매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Dementia)

* 교신저자 : 박인전(E-mail: eqpark@yumail.ac.kr)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60년 한국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여성부, 2001).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정부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이 실시된 이래로 합계출산율은 하락하여 1972년에는 4.14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 1.8명, 2002년 1.17명, 2004년 1.16명, 2005년에는 급기야 1.08명까지 떨어져 사상최저를 기록하였다. 실제로 2003년 단 한건의 출생신고도 없었던 읍면동이 전국 8곳에 달한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20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2030년 4,933만명, 2050년 4,235만명으로 점차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2050년이 되면 한국은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의 '2005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205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37.3%, 75세 이상 노인인구만 따져도 21.5%나 될 것을 예상된다. 이에 비해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 3,650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2050년에는 2,276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전체의 40.9%에 불과한 인구로, 인구의 반은 연금이나 정부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이 되는 셈이다. 이렇듯 출산이 줄고 인구가 고령화되면 경제성장률이 5%대에서 1%대로 하락하고 노인부양을 위한 부담이 현재보다 약 6배가량 높아지게 되어, 2050~2060년이 되면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할 만큼 젊은이들이 일년 내내 번 돈 모두를 노인부양에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경제, 2006.6.12).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감소는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세입의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연금수급자의 증가 및 노인의료·복지비용 등 재정지출의 급증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정수지는 장기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인 출산율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산성 저하,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각종 사회보장 재정의 악화와 같은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 중 심각한 문제가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에 관한 것이다.

자녀의 부모부양의무에 관한 윤리규범은 수세기 동안 부모자녀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성규탁, 1995), 부모가 연로해지게 되면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노인은 가족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사회·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며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었다(조윤주, 이숙현, 2004).

그러나 '7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어온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현상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가치관 및 효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 그동안 가족이 담당해오던 노인보호기능을 현저히 약화시켰으며, 오늘날 사회의 가족중심 노인부양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혈연중심의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더욱 강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내면적인 가족의 변화 역시 진행되어 가족을 위주로 하는 집합주의적 가치관은 점차 쇠퇴하고 개인을 위한 가족이라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경순, 1999). 이와 같은 전반적인 가치관의 변화는 젊은 세대의 노부모부양의식의 변화를 가져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노인부양이 격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통계청(2002) 자료에 의하면 노부모부양은 가족이 맡아야 한다는 응답이 70.7%를 차지하였고, 부양 이유에 대해서는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나(주간한국, 2005.9.26), 노부모부양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적인 효 사상에 입각한 부양의무감이 부모를 부양하는 주된 이유임을 볼 수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에 의한 부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Shanas, 1979)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가족구성원이 노부모에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Uhlenberg, 1996)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선 가정보호, 후 국가보호'라는 노인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노부모를 비롯한 노인부양은 여전히 가족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변화는 가족이 가진 노인부양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부양의 일차적인 동기가 되어오던 노인부양의무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양의식의 차이를 보는 연구(김상숙, 1997; 조윤주, 2002)가 있고, 노인부양부담감에 관한 연구(손서희, 2004; 손영주, 2006), 부양과 그 만족도에 관한 연구(김지영, 1996; 김태현, 1982; 박경란, 1989), 그리고 부양의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에 관한 연구(김지영, 1996; 이위환, 권용신, 2005)가 있다. 즉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노부모부양의무감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부모부양의무감에 관한 연구조차도 노인부양의식 연구에 포함되어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거나(고정자, 이은민, 2000; 오세룡, 2003; 이은경, 1999), 효 의식을 비롯한 가족주의적 가치관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김송애, 1991; 한경순, 1999)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노인부양에 대한 이상적 차원이라 할 수 있는 의식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자신이 자녀로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여기는 현실적 의무감 측면에서의 접근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부양의무감은 노인부양의식과 가장 많은 관련성이 있고(조윤주, 2002), 부모부양에 있어서 애정보다 의무감이 더 우선되며(Jarrett, 1985), 성인자녀가 연로한 아버지를 부양하게 되는 동기는 의무감 때문이라는 선행연구(Kivett, 1988)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부모부양의무감은 노인부양의식을 예측하고 실제적인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성인초기 자녀 또는 손자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주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Dellmann-Jekins, et al., 2000)결과와 대학생은 앞으로 전개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할 세대(정계숙, 박성미, 김정신, 1995)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현재 대학생들의 노부모부양의무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유병노인 인구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통계청(2000, 2004) 자료에 따르면 1999년에 조사된 65세 이상 노인의 유병율은 38.9%였으나, 2003년에는 47.3%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유병율 증가에 따라 치매 유병율 역시 증가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증상을 보이는 비율, 즉 치매 출현율이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2003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출현율은 8.3%로 보고되었고 2010년에는 8.6%, 2015년에는 9.0%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경제, 2003.4.29).

만성소모성 질환인 치매는 인지장애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인해 암 환자보다도 더 많은 부양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가족기능을 마비시키고 가족위기까지 몰고 가는 무서운 질환이다(이은희, 2004). 더욱이 치매 노인에 대해 부양가족이 가진 부양스트레스는 치매노인 학대로 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가질(Kurrle & Sadler, 1993) 정도로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노인들 자신도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를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이 치매에 걸릴 경우 간호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자녀라고 응답한 경우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경향신문, 2005.10.3), 노인이 가진 자녀에 대한 부양기대가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치매노인 부양자에게 부과되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부양

의무감과 이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치매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노인들을 부양하고자 하는 부양의무감 역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이 가진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부양자가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동기는 자식으로서의 의무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밝힌 선행연구(조명희 외, 2000; 최정신 외, 2002)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매노인의 자녀는 전통적인 효 의식을 바탕으로 노부모부양이 자식의 의무라 여기고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치매라는 질병이 상당히 장시간동안의 신체적, 정서적, 물질적 부양 부담을 요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의무감에 기초하여 치매노인을 부양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고정자, 이은민, 2000; 김수혜, 1993)결과에 비추어 노인성 질환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 수준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그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노부모부양의무감을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여기는 책임의식으로 간주하고, 미래 노부모의 주부양자가 될 가능성을 지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부모부양의무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배경특성에 따라 노인을 대하는 태도(류희선, 2004; 이현미, 2005)나 노인부양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고정자, 이은민, 2000; 김지영, 2002)를 토대로, 대학생의 배경특성에 따른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부모부양의무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노인부양의지의 원동력이 된다는 주장(이인수, 2001)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의 관계 및 그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노인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뿐 아니라 노인부양체계 재정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2)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는 배경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부모부양의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한 4개 종합대학교 대학생 371명이며, 연구대상자의 배경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배경특성

N=371

변 인	내 용	N	%
성별	남	117	31.5
	여	254	68.5
연령	19세 이하	125	33.8
	20~22세	154	41.6
	23세 이상	91	24.6
출생순위	첫 째	174	47.2
	중 간	42	11.4
	막 내	133	36.0
	외 동	20	5.4
전공	인문·사회 계열	165	56.7
	자연·공과 계열	126	43.3
종교유무	있다	220	59.8
	없다	148	40.2
노인복지수업 수강여부	있다	100	27.1
	없다	269	72.9
조부모 생존여부	있다	261	70.4
	없다	110	29.6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유무	있다	213	57.4
	없다	158	42.6

* 무응답의 경우 결측값으로 처리되어 빈도수간에 차이 있음.

2. 측정도구

1) 노부모부양의무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을 알아보기 위해 김스미(2004)가 사용한 太田美緖와 甲裵一郎(2002)의 노부모부양의무감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경제적 원조(3문항), 신체적 보조(5문항), 정서적 지원(3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3점 Likert식 척도('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점, '어느 쪽도 아니다' 2점, '그렇게 생각한다' 3점)로 이루어져 있고 부정적 질문으로 제시된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부모부양의무감의 전체 신뢰도는 .83, 하위영역별로는 경제적 원조 .70, 신체적 보조 .78, 정서적 지원 .80으로 나타났다.

2) 치매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현오(2000)의 치매태도 척도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가지 하위영역 즉, '치매 환자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진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된 정서적 치매태도와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된 행동적 치매태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한다. 부정적 질문으로 제시된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치매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치매라는 질병에 의해 자극된 정서적 감정이 긍정적이고, 치매노인에 대해 혐오스럽고 부끄럽게 여긴다기 보다 치매노인을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는 정서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행동적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고, 예방 의지도 강하며, 그 치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짐을 뜻한다. 치매에 대한 태도 전체의 신뢰도는 .76, 정서적 치매태도 .74, 행동적 치매태도 .71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0월 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회수되지 못했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129부를 제외한 총 37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인 Scheffé-test,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의 일반적 경향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의 평균은 2.64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속함을 알 수 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정서적 지원(M=2.88)이 가장 높고, 경제적 원조(M=2.79), 신체적 보조(M=2.40)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노부모부양의무감 중 노부모의 정서적 만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의무감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노부모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조해야한다는 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부모의 보건을 위한 신체적 보조 측면의 의무감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3.8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가진 치매에 대한 태도가 보통 상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이 가진 치매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행동적 치매태도(M=3.97), 정서적 치매태도(M=3.80)의 순으로 나타나, 치매에 대해 자극된 정서적 감정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측면에서보다 치매에 대한 예방 의지나 치료에 대한 적극성 등을 나타내는 행동적인 측면에서 약간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371

하위영역	M	SD
경제적 원조	2.79	.40
신체적 보조	2.40	.55
정서적 지원	2.88	.33
노부모부양의무감 전체	2.64	.36
하위영역	M	SD
정서적 치매태도	3.80	.66
행동적 치매태도	3.97	.60
치매에 대한 태도 전체	3.89	.51

2. 배경특성에 따른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의 차이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가 배경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인 Scheffé-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 배경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

변인	구분	경제적 원조			신체적 보조			정서적 지원			노부모부양의무감 전체		
		M(SD)	F값	S	M(SD)	F값	S	M(SD)	F값	S	M(SD)	F값	S
성별	남	2.81(.39)	.52		2.52(.46)	7.72**		2.89(.26)	.01		2.70(.31)	4.50*	
	여	2.78(.40)			2.35(.58)			2.88(.35)			2.61(.39)		
연령	19세 이하	2.75(.46)	1.92		2.34(.56)	5.19**	a	2.83(.42)	2.50		2.58(.42)	5.16**	a
	20~22세	2.78(.39)			2.36(.56)		a	2.90(.29)			2.62(.35)		a
	23세 이상	2.85(.31)			2.56(.47)		b	2.93(.23)			2.74(.27)		b
출생순위	첫째	2.76(.40)	3.48		2.36(.52)	2.73		2.88(.28)	.03		2.61(.35)	3.04	
	막내	2.84(.37)			2.47(.57)			2.89(.38)			2.68(.37)		
전공	인문·사회계열	2.83(34)	2.29		2.49(.49)	4.65		2.91(.33)	.67		2.70(.33)	4.56*	
	자연·공과계열	2.76(.40)			2.36(.56)			2.88(.31)			2.61(.37)		
종교유무	있다	2.81(.35)	1.94		2.42(.54)	.21		2.89(.33)	.69		2.65(.34)	.85	
	없다	2.75(.46)			2.39(.55)			2.86(.33)			2.62(.39)		
노인복지 수업 수강여부	있다	2.80(.36)	.26		2.31(.57)	4.11*		2.89(.35)	.15		2.60(.36)	1.27	
	없다	2.78(.41)			2.44(.54)			2.88(.32)			2.65(.37)		
조부모 생존여부	있다	2.79(.40)	.20		2.40(.55)	.00		2.88(.32)	.17		2.64(.37)	.01	
	없다	2.77(.40)			2.40(.53)			2.89(.34)			2.64(.36)		
조부모와 생활경험 유무	있다	2.80(.39)	.38		2.45(.51)	3.35		2.89(.32)	.15		2.66(.35)	2.32	
	없다	2.77(.41)			2.34(.60)			2.88(.34)			2.60(.38)		

S : Scheffé-test *p<.05 **p<.01

a, b : 사후검증결과로, 서로 다른 문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있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은 배경특성 중 성별, 연령, 전공, 노인복지수업 수강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별의 경우 노부모부양의무감 전체(F=4.50, p<.05)와 신체적 보조(F=7.72,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자가 여자보다 자신이 노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전반적인 의무감이 높았고 노부모의 보건을 위해 신체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보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연령의 경우 역시, 노부모부

양의무감 전체(F=5.16, p<.01)와 신체적 보조(F=5.19,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22세 이하의 대학생보다 23세 이상의 대학생이 노부모부양의무감 전체 점수 뿐 아니라 신체적 보조의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즉 23세 이상의 대학생이 그보다 어린 대학생보다 자신의 노부모를 부양해야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인 보조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감이 높았다. 전공에서는 노부모부양의무감 전체(F=4.56,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연·공과계열의 학생보다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이 전반적으로 노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의무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수업 수강여부에서는 신체적 보조(F=4.11,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노인복지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노인복지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노부모의 보건을 위한 신체적 보조에 대해 더 높은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배경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

변인	구분	정서적 치매태도			행동적 치매태도			치매에 대한 태도 전체		
		M(SD)	F값	S	M(SD)	F값	S	M(SD)	F값	S
성별	남	3.84(.75)	.81		3.88(.65)	4.33*		3.86(.58)	.40	
	여	3.78(.61)			4.02(.57)			3.90(.47)		
연령	19세 이하	3.71(.64)	2.51		3.77(.60)	12.40***	a	3.74(.49)	9.09***	a
	20~22세	3.80(.66)			4.06(.57)		b	3.93(.51)		b
	23세 이상	3.91(.67)			4.11(.56)		b	4.01(.50)		b
출생순위	첫째	3.75(.68)	2.62		3.93(.58)	1.28		3.84(.52)	2.92	
	막내	3.87(.60)			4.00(.59)			3.94(.47)		
전공	인문·사회계열	3.85(.71)	1.81		4.10(.59)	6.24*		3.97(.53)	5.50*	
	자연·공과계열	3.74(.59)			3.93(.57)			3.84(.46)		
종교 유무	있다	3.84(.69)	1.55		4.03(.57)	4.65*		3.93(.52)	4.31*	
	없다	3.75(.61)			3.89(.63)			3.82(.50)		
노인복지 수업 수강여부	있다	3.85(.70)	.80		4.13(.59)	9.24**		3.99(.56)	5.55*	
	없다	3.78(.64)			3.92(.59)			3.85(.48)		
조부모 생존여부	있다	3.77(.67)	1.59		3.94(.59)	2.45		3.86(.51)	3.03	
	없다	3.86(.63)			4.05(.60)			3.96(.50)		
조부모와 생활 경험유무	있다	3.80(.62)	.02		3.99(.56)	.24		3.90(.48)	.15	
	없다	3.79(.71)			3.96(.64)			3.87(.54)		

S : Scheffé-test *p<.05 **p<.01 ***p<.001
a, b 서로 다른 문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있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태도는 배경특성 중 성별, 연령, 전공, 종교유무, 노인복지수업 수강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행동적 치매태도(F=4.33,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치매에 대한 예방의지가 높고,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치료에 대한 적극성을 나타내는 행동적 치매태도에 있어서 보다 더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연령의 경우에는 치매태도 전체(F=9.09, p<.001)와 행동적 치매태도(F=12.40,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20세 이상의 대학생이 19세 이하인 대학생보다 전반적인 치매태도 뿐 아니라 행동적 치매태도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경우 역시 치매태도 전체(F=5.50, p<.05)와 행동적 치매태도(F=6.24,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연·공과계열의 학생보다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들이 전반적인 치매태도 뿐 아니라 행동적 치매태도에서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또한 종교유무의 경우도 치매태도 전체(F=4.31, p<.05)와 행동적 치매태도(F=4.65,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보다 치매태도 전체 및 행동적 치매태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치매태도와 행동적 치매태도가 보다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수업 수강여부의 경우도 치매태도 전체(F=5.55, p<.05)와 행동적 치매태도(F=9.24,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노인복지에 대해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치매를 더욱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았으며, 구체적으로 행동적인 측면의 치매태도에서 더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3.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의 관계 및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부모부양의무감에 미치는 영향

1)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의 관계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은 치매에 대한 태도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

변인	경제적 원조	신체적 보조	정서적 지원	노부모부양의무감 전체
정서적 치매태도	.20***	.17**	.13*	.21***
행동적 치매태도	.14**	.06	.15**	.12*
치매태도 전체	.21***	.15**	.17**	.20***

*p<.05, **p<.01, ***p<.00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부모부양의무감 전체는 치매태도 전체(r=.20, p<.001) 뿐 아니라 정서적 치매태도(r=.21, p<.001)와 행동적 치매태도(r=.12, p<.05)에서 비교적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치매에 대한 태도 전체 뿐 아니라 정서적 치매태도와 행동적 치매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부모에 대한 전반적인 부양의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원조의 경우 역시 치매에 대한 태도 전체(r=.21, p<.001)와 정서적 치매태도(r=.20, p<.001), 행동적 치매태도(r=.14, p<.01)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치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 뿐 아니라 치매에 대해 자극된 정서적 감정이 긍정적이고, 치매의 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태도가 강할수록 경제적 측면에서 노부모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보조의 경우는 치매태도 전체(r=.15, p<.01)와 정서적 치매태도(r=.17, p<.01)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구체적으로 정서적 치매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보조 측면의 부양의무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원은 치매태도 전체(r=.17, p<.01) 뿐 아니라 정서적 치매태도(r=.13, p<.05)와 행동적 치매태도(r=.15,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해, 전반적인 치매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정서적, 행동적 치매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높게 나타났다.

2)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인부양의무감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부모부양의무감 전체와 하위영역 즉, 경제적 원조, 신체적 보조, 정서적 지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부모부양의무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예언변인	B	ß	R^2	adjusted R^2	F값
경제적 원조	정서적 치매태도	.12	.20***	.04	.04	15.233***
신체적 보조	정서적 치매태도	.14	.17**	.03	.03	10.920**
정서적 지원	행동적 치매태도	.08	.15**	.02	.02	8.479**
노부모부양의무감 전체	정서적 치매태도	.12	.21***	.04	.04	16.465***

**p<.01, ***p<.00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 전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치매에 대한 태도의 예언변인은 정서적 치매태도(ß=.21, p<.001)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4%로 나

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원조의 경우 경제적 원조를 보다 잘 설명하는 치매에 대한 태도의 유의한 예언변인은 정서적 치매태도(ß=.20, $p<.001$)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4%였다. 그리고 신체적 보조의 경우, 신체적 보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유의한 예언변인은 정서적 치매태도(ß=.17, $p<.01$)로서 설명력은 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원의 경우, 정서적 지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유의한 예언변인은 행동적 치매태도(ß=.15, $p<.01$)로서 그 설명력은 2%였다. 즉 치매에 대해 자극된 정서적 감정이 긍정적일수록 전반적인 노부모부양의 무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원조, 신체적 보조에 대한 부양의무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예방의지가 높고, 치매의 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노부모의 정서적인 부양에 대해 높은 의무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1.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의 일반적 경향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부모부양의무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기존의 선행연구(김스미, 2004; 조성희, 2003)결과와 유사하다. 자녀의 부양의무감이 높을수록 현재 및 미래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자 한다는 연구(송현애, 1986), 부양자의 의무감이 높을수록 부양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하며(Horowitz, 1985), 노부모를 도와주고 난 뒤 부정적인 감정을 덜 경험한다는 연구(박경란, 1989)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미래 노부모부양의 일차적 책임자가 될 대학생들이 노부모부양에 대해 높은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본 연구 결과는 실제적인 노인부양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부양스트레스가 적을 것이란 점에서 향후 노부모부양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청년기에 처한 손자녀들이 조부모 부양에 대한 일차적 책임자는 그들의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손자녀인 자신도 필요할 때에는 조부모 부양의 의무를 나누어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Hodgson, 1992), 근본적으로 노부모부양의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는 전통적 규범의식을 여전히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노부모부양의무감을 하위영역별로 보면 정서적 지원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원조, 신체적 보

조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형태의 부양의무감에 비해 정서적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의 경우 다른 사회적인 공적 부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노부모를 향한 정서적인 지지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노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심리적·정서적 교류(민무숙, 1995)이며, 우리나라 노인은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당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은 정서적 학대상황에 대해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인다는 조사결과(국가인권위원회, 2006)에 비추어 볼 때, 미래 주부양자가 될 대학생들이 정서적 부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 노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경제적 원조와 신체적 보조 측면의 의무감이 정서적 지원에 대한 의무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이런 형태의 부양은 반드시 자녀가 아니어도 지원받을 곳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은 인간다운 최저생활유지와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한 일차적 조건이 되며(이신숙, 1994), 신체적 부양 역시 노화에 따른 필연적인 신체적 변화에 따라 반드시 요구되는 부양형태이므로 이 두 부양의무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회적 관심사'는 바로 노후소득지원(49.4%), 취업지원(23.6%), 요양보호서비스(16.8%)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5.2.17). 정부차원에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재가보호서비스, 지역사회보호서비스, 노인수발보험 등 노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노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관심사는 바로 경제적 자립과 보호서비스인 것이다. 주로 가족구성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노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 안정이나 보호서비스 확충이 요구되며, 이에 경제적 원조, 신체적 보조 측면의 의무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대학생들이 가진 치매에 대한 태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현재 대학생의 경우 치매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치매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밝힌 선행연구(조현오, 2000)결과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노인질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 치매라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인식수준 또한 높아져 대학생들이 치매를 단순히 늙으면 걸리는 불치병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치매와 치매노인에 대해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 정서적 치매태도에 비해 행동적 치매태도의 점수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조현오, 2000; 한정순, 2005)결과와 일치한다.

노인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실제적 경험과 관련되며,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원영희 외, 2002)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치매 및 치매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치매와 치매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배경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의 차이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은 배경특성 중 성별, 연령, 전공, 노인복지수업 수강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2세 이하보다 23세 이상이 전반적인 노부모부양의무감이 높았으며 노부모 보건을 위해 신체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보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연·공과계열 학생보다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노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전반적인 의무감이 높았고, 노인복지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노인복지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노부모의 보건을 위한 신체적 보조에 대해 더 높은 부양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높은 노부모부양의무감을 나타낸 것은 다른 선행연구(조성희, 2003; 최정혜, 1997)결과와 유사한데, 이는 전통적으로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과 부모부양 책임이 아들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근대적 경향을 나타내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의식이 더 빠른 속도로 전통성을 탈피해 가고 있다고 밝힌 Scanzoni(1975)의 연구결과와도 관련이 있다. 친족체계가 약화되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의무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는 쪽으로 부양의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 자료들(국민일보, 2004.5.6; 연합뉴스, 2006.3.2; 중앙일보, 2006.3.3)이 제시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노부모부양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노부모부양의무감의 차이를 보인 본 연구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과 부양책임의식이 높다고 밝힌 1990년대의 연구들(김송애, 1991; 성규탁, 1995; 이은경, 1999; 최정혜, 1997)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실제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노부모부양의무감을 조사한 김스미(2004)의 연구에서는 젊은 층일수록 노부모부양의무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유병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경우는 연령이 낮을

수록 부양 지속시간도 짧기 때문에 그만큼 노부모부양의무감이 높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즉 연구대상자가 미래의 노인부양자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노부모가 유병노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자녀가 가진 노부모부양의무감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연구대상을 다양화하여 그들의 연령에 따라 노부모부양의무감이 어떠한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학에서 노인복지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노인복지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보다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보조 측면에서의 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복지관련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생보다 전체적으로 부양의식이 낮다는 연구(김윤정, 1998)결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타 학과 학생보다 더 낮은 노인부양의식 수준을 보인 연구(황정순, 2004)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노인복지수업을 통해 노인들의 신체적 변화와 그에 따라 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되고, 또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여러 보조책과 노부모 부양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노부모 신체적 보건은 반드시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과 부담감이 줄어듦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성별, 연령, 전공, 종교유무, 노인복지수업 수강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행동적 치매태도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세 이상의 학생들이 19세 이하인 학생들보다, 자연・공과계열의 학생보다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노인복지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전반적인 치매태도 뿐 아니라 행동적 치매태도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긍정적인 행동적 치매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조성희, 2003)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치매에 대한 관심과 예방의지 및 치료에 대한 적극성이 높으며, 치매를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지각하고,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3명 중 2명(63.6%)은 여성이 돌보고 있으며(연합뉴스, 2006.3.2), 치매노인의 주부양자는 여성으로 치매노인의 며느리가 가장 많다고 밝힌 연구(조명희 외, 2000), 그리고 가족 수에 관계없이 소수의 가족 구성원, 그것도 여성에게 치매노인의 부양책임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Baum & Page, 1991)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적 진출과 함께 직업을 가진 여성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보호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은 주로 여성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부담

역시 클 것이므로, 치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노인복지수업 수강여부에 따라 치매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보여, 노년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노인복지관련 수업이 긍정적인 치매태도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과 관련된 강의 수강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Holtzman과 Beck(1981)은 노인의학 과목을 수강한 의대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King(1983)의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습을 한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우 실습 전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이영숙과 박경란(2002)도 노년학과 관련된 교육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수업이 치매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노부모부양의무감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노년기 관련 수업이 실제 주부양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욱 자세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노년기 관련 교과과정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및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부모부양의무감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은 치매에 대한 태도와 전반적으로 정적 상관을 보여,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부모부양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노인부양의무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윤성혜, 1990),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 연구(오세룡, 2003)결과로 미루어 볼 때,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나아가 노인이 걸리게 될지 모르는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감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부모부양의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노부모부양의무감 전체, 그리고 하위변인 중 경제적 원조와 신체적 보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예언변인은 정서적 치매태도로 드러났으며, 노부모부양의무감의 하위변인 중 정서적 지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언변인은 행동적 치매태도로 나타났다. 즉 치매에 의해 자극된 정서적인 감정이 긍정적이고 치매노인을 인간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 대학생이 전반적으로 노부모부양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노인을 포함한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노부모에 대한 실제적인 부양행동을 예측하는 부양의무감에 중요한 변인임이 드러났다.

한편, 노부모부양의무감 가운데 정서적 지원에는 행동적 치매태도가 가장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의지가 노부모의 정서적 만족을 위해 애쓰고자 하는 부양의무감에 중요한 예언변인임이 드러났다. 즉 치매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치매에 대한 관심을 통해 정확한 지식을 알고 치매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사회, 국가적으로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인식하는 태도가 노년기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을 가정에서 모시는 것이 효라고 여기는 전통적 관습 때문에 치매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비로소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찾는 경우가 허다하고, 치매노인을 시설로 모셔 부양할 경우 대부분의 가족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치매초기에 적극적인 행동적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최정신 외, 2002) 실정에 있다. 치매노인에 대한 이러한 부양부담감과 현실적인 대처 부족은 치매노인의 부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치매노인을 포함한 노부모의 부양에 있어 노인성 질병인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자녀세대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노인인구 증가와 적은 수의 자녀로 인해 부양자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이들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크게 높진 않지만 비교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젊은이들의 노부모에 대한 의무감에 치매에 대한 태도, 특히, 정서적 치매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힘으로써 치매유병율 증가, 치매발병시점의 저연령화, 치매노인의 부양문제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G시 일부지역의 대학생을 임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울러 대학생만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으

므로 연구결과를 미래의 부양세대인 모든 청년층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미래의 주부양자가 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현재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 특히 유병노인 부양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부모부양의무감이나 치매에 대한 태도를 함께 조사하여 비교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에 영향을 미치는 치매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 노부모부양의무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가진 노부모부양의무감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태도에 따른 실제적 부양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경향신문(2005). 노인들 “치매 가장 무섭다”. 2005. 10. 3.

고정자, 이은민(2000).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문집, 8,** 3-36.

국가인권위원회(2006).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조사.**

국민일보(2004). “부모님요? 나 살기도 빠듯해요”… 전통적 효도관 붕괴. 2004. 5. 6.

김상숙(1997). 노인의 치매 불안정도 연구-부양기대감과 치매인식정도 및 실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송애(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기혼여성의 시가와 친가에 대한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혜(1993). 부산시내 일부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스미(2004).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한 자원의 조절효과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윤정(1998). 대학생의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영(1996). 단독가구노인의 부양만족도: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현(1982).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가족부양의 실태와 부양만족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류희선(2004). 대학생들의 노화에 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무숙(1995). 노모와 성인 딸/며느리간의 상호원조유형이 부양부담도에 미치는 영향. **노년학연구, 15(1),** 74-90.

박경란(1989).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 장남부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규탁(1995).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돌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15(1),** 1-14.

손서희(2004). 기혼자녀와 부모간의 친밀감에 따른 부양행동 및 부양부담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영주(2006). 치매노인가족의 부양부담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현애(1986).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성부(2001). **저 출산 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 방향.** p. 8.

연합뉴스(2005). 「2005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발표. 2005. 2. 17.

연합뉴스(2006). [여성가족부] ‘가족’ 남성은 혈연・여성은 정서적 관계 중요시. 2006. 3. 2.

오세룡(2003). 한국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성혜(1990). 청년・중년・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원영희, 김동배, 이금룡, 한정란(200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2(2),** 131-146.
이신숙(1994). 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노모와의 유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숙, 박경란(2002). 노년학 교육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3),** 29-41.
이위환, 권용신(2005). 가족친밀감과 노인인식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4(2),** 165-178.
이은경(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45-65.
이은희(2004). 주부양자가 인지한 치매노인 학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인수(2001). 대학생이 느끼는 조부모의 도움. **한국노년학, 21(1),** 131-145.
이현미(2005).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계숙, 박성미, 김정신(1995). 대학생의 노인지각에 관한 횡문화적 연구. **부산사대논문집, 30,** 143-161.
조명희, 권오정, 최정신, 김대년(2000).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과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9,** 33-65.
조성희(2003).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노인에 대한 인식, 가족기능, 부양의무감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윤주(200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갈등 및 부양 의무감과 부모 부양 의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윤주, 이숙현(2004).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와 부모 부양 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63-74.
조현오(2000). 치매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과 태도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간한국(2005). 힘겨운 황혼의 노인. 2005. 9. 26.
중앙일보(2006). 2005년 한국 가족의 풍경은… 2006. 3. 3.
최정신, 권오정, 김대년(2002). 치매노인 부양경험 유무에 따른 부양요구의 차이와 치매노인부양실태. **대한가정학회지, 40(5),** 195-210.
최정혜(1997). 대학생의 효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5(6),** 55-69.
통계청(2000). 유병율,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통계청(2004). 유병율,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통계청(2005). 장래인구 특별 추계 결과.
한경순(1999). 남녀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7(9),** 13-24.
한국경제(2003). 치매환자 갈수록 늘어나는데… 치료·요양시설 '제자리'. 2003. 4. 29.
한국경제(2006). ['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50년후엔 老人 40%… 선진국문턱서 '早老'. 2006.

6. 12.
한정순(2005).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의 관계.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정순(2004).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과 노후대비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太田美緖, 甲裵一郎(오타・카이)(2002). 老親扶養義務感尺度の開發. 社會福祉學, **42(2),** 130-138.
Baum, M, & Page, M.(1991). Caregiving and multigenerational families. *The Gerontologist, 31*, 762-769.
Dellmann-Jekins, M., Blankemeyer, M., & Pinkard, O.(2000). Young adult children and grandchildren in primary caregiver roles to older relatives and their services needs. *Family Relations, 49(2)*, 177-186.
Hodgson, L. G.(1992). Adult grandparent and their grandparents : The enduring bond.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4(3)*, 209-225.
Holtzman, J., & Beck, J.(1981). Cognitive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aged of dental and medical students. *Educational Gerontology, 6*, 195-207.
Horowitz, A.(1985). Sons, and daughters as caregivers to older parents : Differences in role performance and consequences. *The Gerontologist, 25*, 612-617.
Jarrett, W. H.(1985). Caregiving within kinship systems: Is affection really necessary? *The Gerontologist, 25*, 5-10.
King, P. A.(1983). Learning to care.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9(5)*, 289-292.
Kivett, V. R.(1988). Older rural fathers and sons: Patterns of association and helping. *Family Relations, 37*, 62-67.
Kurrle, S. E., & Sadler, P. M.(1993). Patterns of elder abus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58(5)*, 359.
Scanzoni, J.(1975). *Sex role, life styles and childbearing : Changing patterns in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Shanas, E.(1979). Social myth as hypothesis: The case of family relations of old people. *The Gerontologist, 19(1)*, 3-9.
Uhlenberg, P.(1996). The burden of aging: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shifting balance of caregiving and care receiving as cohort age. *The Gerontologist, 36(6)*, 761-767.